월주 스님 "진실과 자비, 둘 아니다"

금산사, 1418주년 개산대재 봉행



백제 법왕 원년(599년) 백제 왕실의 자복사찰로 창건된 이래 역대 조사들의 중생구제를 위해 진력했던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미륵도량인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가 10월 21일 1418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기념법회에 앞서 금산사 사부대중은 역대 금산사에서 수행했던 역대 조사 다례재를 조사전과 부도전에서 봉행하고 조사스님들이 추구했던 위법망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고귀한 유지의 계승과 금산사의 발전을 다짐했다.

이어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열린 개산 1418주년 기념법회는 예참, 육법공양, 연혁보고, 염송문 낭독,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법회에는 조실 월주 스님, 일원 스님, 덕산 스님, 화평 스님 등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 김관영 · 김광수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등 각급 기관장과 불자들 8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참 나를 깨닫고 중생을 구원하는 진실과 자비의 2가지 축으로 귀결된다"면서 "번뇌망상으로 인해 참 나에 대한 진정성과 이웃에 대한 자비행을 망각하고 사사로운 개인감정으로 이웃을 원망하고 배척하는 비불교적 행동이 활개치는 현실을 볼 때 수행자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스님은 이어 "진정성과 합일된 자비수행이야말로 개인의 평화는 물론 인류평화를 구현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전거가 한아름 실어다준 행복

빛고을나눔나무, 룸비니 어린이들 자전거 전달



부처님이 태어난 곳인 룸비니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행복자전거가 전달돼 화제다.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보응)는 10월 16~20일 네팔을 방문해 룸비니지역 아이들에게 자전거 100대(1,000만원 상당)와 후원물품 등을 전달했다.〈사진〉

방문단은 3개 초등학교(쉬 자나 죠리 초 25대, 쉬 산티 모덜초 25대, 쉬 세인 커리거 도터다러 25대)와 빈곤층 마을 25대를 전달하고 인근 고아원시설인 에터너리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보응 스님은 "광주지역 많은 사찰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기금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룸비니 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행복 도구가 되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茶는 내면 성찰하는 좋은 도구"

대흥사 · 해남 다인회, 제26회 초의문화제 공동 개최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 10월 20~21일 경내에서 '제26회 초의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남 다인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초의문화제는 '초의 차(茶) 광장으로 나오다'라는 주제로 들차회, 차학술논문발표, 초의상 시상과 차 관련 상품 전시판매, 부채 다포 그리기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20일 전야제서는 해남서초 국악관현악단의 공연과 30여개 차인회가 참여한 들차회가 밤하늘을 밝혔다. 이어 21일 기념식은 초의선사 동상에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과 김정섭 해남다인회장의 헌다로 시작됐다.

월우 스님은 "초의선사는 차는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보며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셨다"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차의 정신을 음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대중수행처로 승려노후복지를"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불사 대중공사 열어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가 대중스님들의 기거공간인 '대중수행처' 건립에 나선다.

송광사는 10월 21일 사자루에서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불사를 위한 대중공사'를 열고, 4명의 주제발표와 모둠토론,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교구 내 스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90여 명의 교구스님들이 참여한 이날 대중공사는 △대중수행처의 건축적 구성요소 제안(한욱빈 불교문화재연구소 건축팀장) △종단 소속 사찰 대중수행처 운영현황(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송광사 대중수행처 시설 개요(조정구 구가도시건축) △송광사 재적승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진화 스님)의 주제발표와 '대중수행처의 필요성' '입방금의 적정성' '수행처 시설에 대한 제안' '1만 명 후원회원 모집방안'에 대한 토론이 5시간동안 진행됐다.

송광사에서 추진하는 '대중수행처'란 승려노후시설을 포함해 일정한 거처가 없는 송광사 교구 내 스님들의 거주공간을 의미하며, 송광사 인근 주암저수지에 있는 오도암에 40동을 건립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욱빈 건축팀장은 조계종의 대중수행시설 사례분석을 통해 "종단에는 화성 용주사 금대원, 화성 자제정사 심우당, 고창 선운사 노후수행마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대중수행처의 공간구성 요소, 필요시설 기준안 등을 사찰법, 노인요양기준 시설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 "송광사에서 마련할 대중수행처는 조계종단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승가복지체계 확립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법하게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해제 후 거주처 없다' 69%
소임 만료자는 이보다 많아
대중수행처 필요성 다수 공감

박종학 사무국장은 종단소속 사찰 대중수행처의 운영 현황을 발표하면서 '주거보장의 필요성' '노후주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단 사찰의 대중거주처 운영형태 구분' '시설입주금액 현황' '대중거주처 관리자 및 거주자 등 의견' '대중수행처 규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조정구 건축소장은 송광사 대중수행처의 가상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기존 오도암 사찰과 연계해 한실형 15평, 16평형과 원룸형 15평형의 설계도면 및 편의시설 등을 소개했다.



순천 송광사는 10월 21일 오도암 대중수행처 건립을 위한 대중공사를 열고, 대중수행처에 대한 대중 의견을 수렴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진화 스님은 '송광사 재적승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해제나 방학 시에 따로 거처하는 곳이 없다는 답변이 69%에 이르며, 소임 만료 후 거처할 곳이 없다는 스님이 77%에 이른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대중수행처 건립을 위한 재원에 대해 "전체 100억 원의 공사비를 국 · 시도 지원금 60%와 자부담 40%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오도암 대중수행처에 대한 스님들의 6개 분별토론이 이어졌다. 분별토론에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고정적 거처가 없는 현실과 대중수행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입방금에 대해 5000만원을 적정선으로 하고, 47명 스님의 입방의향서를 제출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세미나 발제로 설계도를 공유한 이후 만족한다"는 반응과 "기본적 응급시설을 보완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특히 자부담 마련의 일환으로 매월 1만원 후원자 1만 명 모집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본불교, 국내 민족종교 말살도 가담"

군산 동국사 · 한일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니이노 카즈노부 교수 주장
"수운교 진종 대곡파 귀속
실제론 진종 신앙 안 해"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와 한일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1일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18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근대기 일본종교의 한반도 침투와 그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권동우 일본불교대 교수가 '교파신도의 조선포교로 보는 근대신도의 양상', 니이노 카즈노부 일본 동붕대 교수가 '15년 전쟁기의 한국종교', 문혜진 동서대 교수가 '일제 강점기 경성부 남산의 일본종교침투에 관한 고찰', 이치노헤 쇼코 운상사 주지가 '식민지 시대 사사와 나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진출한 일본불교 진종 대곡파가 불교뿐 아니라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등의 민족종교도 말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이노 카즈노부 교수는 '15년 전쟁기의 한국종교- 수운교의 일본 진종 대곡파 귀속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니이노 교수에 따르면 일제는 '사찰령(1911)'을 통해 공인된 불교사찰 이외에 천도교, 시천교, 보천교 등 70여개에 이르는 민족종교를 종교유사단체(유사종교)라 칭하며 보안법(1907) 등으로 엄중단속을 받게 되고 동학의 흐름을 이어받은 수운교도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수운교는 1936년 대전경찰서 고등계로부터 '교리는 불교에 가까우므로 불교로 개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운교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해산명령을 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1937년 '미타교'로 개칭하고 진종 대곡파에 귀속된다.

그해 3월 16일 교주 이상룡 등 13명이 교토 동본원사를 방문해 득도하고 진종 대곡파에 귀속하게 되지만 실제 신자들은 형식적으로만 귀속하고 진종을 신앙하지 않았다고 니이노 교수는 주장했다. 그 증거로 광복 때까지 수운교 기도나 포교혐의로 징역형이나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고 6명이 옥사한 것을 제시했다.

진종 대곡파는 경성에 조선승려 양성소를 운영하며 조선불교의 일본화에 적극 나서기도 했는데 수운교의 득도자 중 8명이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 진종 대곡파는 수운교를 귀속시키며 진제(부처님 가르침)인 불도와 속제인 황도(천황의 가르침)라는 두 가지를 일원화해 불교와 황도를 종파활동의 근간으로 삼게 했다.



군산 동국사 100주년 기념관서 열린 동국사 · 한일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니이노 교수는 수운교 교주 이상룡이 득도한 흥룡사 휘장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8각으로 된 이 휘장은 가운데 만자를 중심으로 아미타불 48원을 상징하는 선이 표시돼 있다. 니이노 교수는 "이 휘장은 일본 천황의 3가지 보물 중 하나인 '야타노카가미' 거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휘장은 대곡파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평에 나선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한국에서 신종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사찰령에 의해 수운교가 귀속됐다는 주장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운교 귀속에는 일제와 일본 진종 대곡파의 조선불교 탄압과 민족정기 말살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운교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욱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임해 밭 죽순
식물성 단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성원사
• 주 지 : 법경(성환기)
• 주 소 : 부산시 북구 덕천동 132-13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중앙회 총무원장 법하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